

# 초기 『신청년』에서 전개된 ‘청년’ 담론의 기원과 성격

송 인 재\*

- I. 『신청년』과 근대 중국
- II. 개념적 기원-1915년 이전 ‘청년’ 개념의 내포
- III. 역사적 기원-『신청년』 창간 이전 천두슈와 ‘청년’
- IV. 초기 『신청년』에서 제시한 ‘청년’의 상
- V. 맺음말

## • 국문초록

『신청년』은 청년을 잡지의 제호이자 주 독자로 설정하고 ‘청년’ 담론을 생산하면서 근대적 가치를 선전했다. 이 글의 목적은 초기 『신청년』이 청년과 근대를 매개하면서 형성한 ‘청년’ 담론의 개념적·역사적 기원과 성격에 대한 규명이다. 개념적 기원은 사상사 분야 전문 데이터베이스 『중국근현대사상사 전문 데이터베이스(1830~1930)』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에 새롭게 정의된 개념이고, 『신청년』 창간 이전부터 계몽적 지식인들은 청년을 새로운 지식 및 가치를 담지한 활력적 존재자이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기대 집단으로 규정하며 근대적 성격을 부여했다. 역사적 기원은 청년 시절에 정치운동을 하며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근대적 청년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신청년』 창간자 천두슈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자각을 강조한 1914년 천두슈의 사상은 『신청년』이 청년에게 호소한 자각과 개인분위 가치관의 연원이 되었다. 초기 『신청년』은 이러한 개념적·역사적 기원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대적 사명을 자각한 청년, 국제질서의 원리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를 정확히 인식한 청년, 개인본위 가치관을 지향하는 청년의 상을 제시했다. 이것이 동인지나 당 기관지로 전환하기 이전, 즉 초기 『신청년』에서 전개된 ‘청년’ 담론의 성격이다.

• 주제어

청년, 근대, 개인, 천두슈, 『신청년』

## I. 『신청년』과 근대 중국

근대 중국에서 ‘청년’은 근대와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가졌다. 이는 문화의 근대적 전환을 선도했던 잡지 『신청년(新靑年)』(1915~1926)에서 이루어졌다. 『신청년』은 ‘청년(La Jeunesse)’을 잡지의 제호로 설정했으며 사고(社告)에서 청년이 주요 독자층임을 명시했다. 현실적으로도 5·4운동 시기에 사회의 주요 집단으로 부각된 청년층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다.<sup>1)</sup> 이와 관련해서 후스(胡適)는 『신청년』을 ‘새로운 시대를 연 잡지<sup>2)</sup>’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청년』은 ‘청년’을 전면에 내거는 동시에 중국의 근대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년』의 막강한 영향력 탓인지 기존의 연구에서 『신청년』은 대체로 신문화운동의 시발점이 된 매체라는 맥락에서 조명되었다.<sup>3)</sup> 또한 논의의 초점 역시 근대적 가치를 창도한 논조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전통윤리에 대한 비판’·‘과학 정신의 고취’·‘백화문운동’ 등에 맞추어져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신청년』의 논조와 그 역사적 의미에 관심을 둔다. 최근 들어 『신청년』과 청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등장했다. 이들은 각각 『신청년』이 잡지 구독자 5·4운동 세대 청년을 길러냈다고 설명하거나,<sup>4)</sup> 19세기부터 1990년대 초까지 중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청년 집단의 형성과 사회적 위상을 조망하는 가운데 『신청년』의 ‘청년’ 담론이 근대중국의 청년상을 확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5)</sup> 이들 연구는 시간 범위는 다르지만 모두 『신청년』이 생산한 담론이 향후 중국 사회에 미친 파급효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시간적으로 반대를 바라보고 창간 이전에 주목하여 『신청년』의 역사적 자원을 매체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조망한 연구도 존재한다.<sup>6)</sup> 여기서는 형식면에서 『갑인(甲寅)』의 체제가 『신청년』에 계승되었고, 내용면에서 ‘신민(新民)’ 사상과 과학을 통한 계몽 정신이, 경험의 측면에서 천두슈의 언

1) 이와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鄧金明, 『從『新靑年』到“新靑年”』, 首都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8), 2쪽 참조. 한편 ‘하나의 잡지로서 『신청년』이 신문화 운동의 발원지가 되고 몇몇 지식인이 중국의 근대문화에 영향을 준 사실에서 『신청년』을 근대문화사의 신화로 평가하기도 한다. 李憲瑜, 『『新靑年』雜誌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2000).

2) 胡適, 『與高一涵等四位的信』, 『努力週報』 第75期, 1923年10月.

3) 『신청년』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董秋英·郭漢民, 『1949年以來的『新靑年』研究評述』, 『近代史研究』 2001年 第6期 참조.

4) 鄧金明, 같은 논문.

5) 陳映芳, 『“靑年”與中國的社會變遷』(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6) 史濤, 『『新靑年』出場的歷史資源探析』,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2008).

론활동 경험·백화문 매체 발간 경험 등이 계승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거론한 연구들은 『신청년』이 제시한 근대적 가치의 전체상과 역사적 위상을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반면 『신청년』이 ‘청년’과 중국의 근대를 매개하고 있는 양상을 직접 규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에 따라, 왜 『신청년』이 ‘청년’을 내세우게 되었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매체로서의 『신청년』의 역사적 자원에 주목한 성과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목과 ‘청년’ 담론의 제기 배경에 대한 해명은 부족하다.

이들 연구와 달리 이 글은 결과론적으로 드러난 『신청년』의 역사적 영향력이 아닌 ‘청년’ 자체에 대한 『신청년』 발행주체의 인식에 주목한다. 『신청년』 첫 호에 실린 「사고」에서는 첫 머리부터 “나라의 기운이 기울고 도(道)가 쇠퇴하며 학(學)이 사라졌다. 이후의 책임은 바로 청년에게 있다.”<sup>7)</sup>라고 말하고, ‘청년들과 수신(修身)과 치국(治國)의 방안을 함께 논할’ 계획과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수준 높은 학술적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청년의 의지를 고양시키며, 과학의 중요성을 자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년』에 청년을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 위치 지우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년』이 청년과 근대를 매개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청년』의 ‘청년’ 담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청년』의 ‘청년’ 담론에 주목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단계로 ‘청년’ 담론의 기원을 추적하고 그것이 창간 초기 『신청년』에 반영되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sup>8)</sup>

본론에서는 ‘청년’ 담론의 기원을 개념과 역사의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개념적 기원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청년』에서 사용하는 ‘청년’ 개념이 근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논하겠지만, ‘청년’은 근대적 가치의 담지자로 호명되기도 하면서 그 개념 자체가 근대에 새롭게 정의된 것이다. 따라서 ‘청년’ 담론의 기원을 규명하려면 개념적 기원에 대한 탐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개념적 기원을 탐색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근대 중국 사상사 분야 주요 문헌이 수록된 「중국근현대사상사 전문 데이터베이스」(1830~1930)<sup>9)</sup>(이하 「데이터베이스」로 표기) 시

7) 「社告」, 『青年雜誌』 第1卷 第1號, 5쪽. 이하 「사고」의 내용은 같은 쪽 참조. 본 논문에서 참조하는 『新青年』 판본은 『原刊本影印 新青年』(東京: 汲古書院, 1970)이다.

8) 여기서 말하는 초기 『신청년』이란 1915~1916년에 상하이에서 천두슈 책임편집 체제로 발행된 시절의 『青年雜誌』 혹은 『신청년』을 말한다.

9) 「中國近現代思想史專業數據庫」(1830~1930)는 金觀濤·劉青峰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수록된 자료는 1830~1930년 사이 중국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 정부문

스텝 운용결과를 활용할 것이다.<sup>10)</su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개념 사용의 구체적 사례와 사용빈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근대 중국에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구체적 사례와 사용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sup>11)</sup> 아울러 검색결과는 ‘청년’ 담론 형성 추이를 파악하는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다. 역사적 기원은 1915년 이전 『신청년』 창간자인 천두슈(陳獨秀)의 현실적 행적에 나타난 청년의 상과 사상적 행적 속에서 찾으려 한다. 개념적·역사적 기원을 규명한 후에는 초기 『신청년』이 제시하는 ‘청년’에 대한 인식과 청년에게 호소하는 근대적 가치들이 1915년 이전 중국의 ‘청년’ 개념과 천두슈의 사상과 행적의 맥을 잇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초기 『신청년』에서 전개된 ‘청년’ 담론의 성격 규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II. 개념적 기원-1915년 이전 ‘청년’ 개념의 내포

### 1. ‘청년’ 개념의 근대적 전환

이 절에서는 ‘청년’ 개념이 전근대적인 의미로부터 젊은 세대 집단을 지칭하는 근대적 의미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청년’이라는 용어는 전근대 중국에는 ‘나이가 젊다’ 혹은 ‘젊은 시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12)</sup> 『데이터베이스』에 ‘청년’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해보면, 1830~1930년에 ‘청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문이 총6,100건 검출된다. 그중 19세기 동안에는 <표 1><sup>13)</sup>에 보이는 것처럼 사

서, 청대경세문편, 단행본, 재중 외국인 중국어 저역서, 청나라 말기 서학교과서 등 여섯 분야의 문헌이며, 총 분량은 2008년 기준시점으로 한자 1억 3천만 자 가량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상세한 연도별 분량은 <表14.1 『中國近現代思想史專業數據庫(1830-1930)各年文獻字數>, 金觀濤·劉青峰, 『觀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8), 576쪽 참조. 수록 문헌은 金觀濤·劉青峰, 같은 책, 부록1 참조. 이하 내용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한 자료에는 ‘DB’를 표기하였다.

10) 이 지면을 빌어 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연구에 활용하도록 해 준 金觀濤·劉青峰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11)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그 의미는 劉青峰, 『관념사(觀念史)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 『개념과 소통』 No. 4(2009) 참조.

12)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全唐詩』卷四百六十七『牟融·寄張源』: “咫尺西江路, 悲歡暫莫聞. 青年俱未達, 白社獨離群.” 鄭燮『再和盧雅雨』之二: “莫以青年笑老年, 老懷豪宕倍從前.”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漢語大詞典』‘青年’ 항목 참조.

13)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표와 그림은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를 근거로 필자가 직접 작성

용빈도가 95차례로 전체 사용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다. 특히 1838~1888년에는 1년에 1회 꼴로도 사용되지 않았다. 사례를 살펴보면 의미도 대부분 ‘젊다’, ‘젊은 시절’이라는 전통적 용법에 제한되어 있었다. 『동서양고매월통기전(東西洋考每月統記傳)』에서 “아직 젊었을 때 프랑스 왕과 결혼했다.”, “용모가 수려하고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어 재가하지 않았다.”라는 기사<sup>14)</sup>에서 젊은 시절이라는 의미로 ‘청년’이 사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표 1〉 19세기 중후반 ‘청년’의 사용빈도

기간	1838~1888	1891~1896	1897	1898	1899	1900	합계
사용빈도	18	5	8	28	23	13	95
다수 출현 문헌(빈도)				『戊戌變法』 (21)	『清議報』(14) 『飲冰室專集』(5)	『清議報』 (10)	

〈표 1〉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젊은 세대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1890년대 후반부터 발견된다. 1898년에 선교사 티모시 리차드(Timothy Richard, 1845~1919)가 상하이 청년유신회(青年維新會)를 언급하거나 28세 강여우웨이(康有爲)를 청년으로 소개하는 사례,<sup>15)</sup> 일본인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1860~1939)가 량치차오(梁啓超)를 비범한 청년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sup>16)</sup> 1897년에는 강여우웨이의 『일본서목지(日本書目志)』에서 『신조운문청년창가집(新調韻文青年唱歌集)』·『불교청년회연설(佛教青年會演說)』 등 일본의 도서명을 소개하면서 사용했다. 이 사례들에서 ‘청년’이라는 용어는 외국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중국에서 일본의 사정을 소개할 때 사용되었다.

1898년과 1899년에는 ‘청년’의 사용빈도가 전에 비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1898년에는 무술변법을 기록한 사료에서 해당 사건과 청년 세력 혹은 강여우웨이·량치차오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1899년에는 『청의보(清議報)』나 『지신보(知新報)』 등 무술병법의 주도자인 강여우웨이와 량치차오가 발행한 잡지에서 ‘청년’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두 잡지의 기사에서 ‘청년’에는 ‘젊다’라는 의미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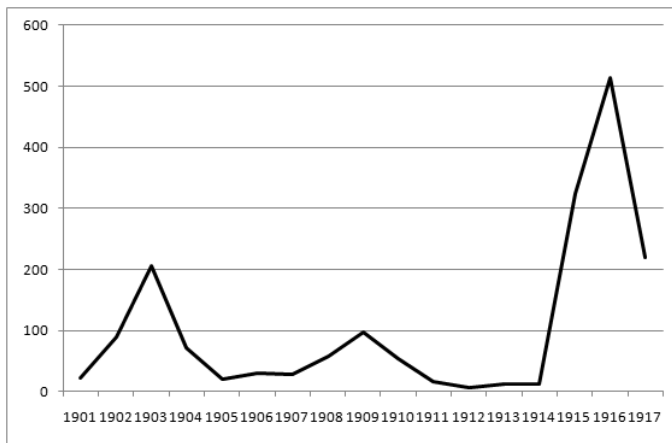
14) 愛漢者, 『漢道光戊戌年二月』(1838), 『東西洋考每月統記傳』(DB).

15) 李提摩太(Timothy Richard) 著, 林樹惠 譯, 『中國的維新運動』(1898), 翦伯贊·劉啓戈 等 編, 『戊戌變法』第三冊(上海: 神州國光社, 1955)(DB).

16) 林權助 撰, 張縑子·張雁深 合譯, 『戊戌政變當時』(1898), 翦伯贊·劉啓戈 等 編, 같은 책, 1955(DB).

젊은 세대 집단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이들 매체에서는 “현실을 다룬 서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사상계를 개조한다.”<sup>17)</sup>와 “광업 철도 학교를 설립하여 젊고 똑똑한 학생[靑年穎悟學生] 2,30명을 선발한다.”<sup>18)</sup> 등의 문장에서 ‘청년’이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아직은 ‘청년’이 세대 집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도 여전히 전통적 의미가 잔존했다.

또한 1899년과 1900년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량치차오가 자신의 저서와 『청의보』의 기사에서 ‘청년’을 시대적 과제와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우리 청년이 바로 한 나라의 장래의 주인”,<sup>19)</sup> “난세는 청년을 사랑한다.”<sup>20)</sup> 등의 문장이 있다. 이들 문장에서 각각 청년은 향후 나라의 주인으로, 어지러운 정세에 부응해야 할 존재로 호명되고 있다.



〈그림 1〉 1901~1917년 ‘청년’의 사용빈도 변동 추이

상술한 바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 ‘청년’은 의미가 변화하는 동시에 사용빈도도 많아지는 등 점차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의미의 측면에서는 ‘젊다’라는 전통적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젊은 세대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정착되었다. 또 다른 특징적 사항은 변법유신이 종결된 후인 19세기의 마지막 두 해에 ‘청년’은 매체라는 공간에서 계몽적 지향이 표출될 때 계몽적 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사회적 존

17) 『讀經濟新報布版權於支那論(原論見本冊譯篇)』, 『清議報』第十三冊(1899)(DB).

18) 『浙東礦務章程』, 『知新報』第七十八冊(1899)(DB).

19) “我輩靑年正一國將來之主人”, 任公, 『呵旁觀者文』, 『清議報』第三十六冊, 1900(DB).

20) “亂世愛靑年”, 毋暇, 『秋日送友人壯行』, 『清議報』第六十七冊(1900)(DB).

재자로 위상이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1900년 이후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림 1>에 따르면, 1901년부터 ‘청년’의 사용빈도는 상승했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각각 1903년·1909년·1915년에 사용빈도 고점을 이루었다. 다음 절에서는 1901년부터 1914년까지 ‘청년’ 개념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겠다.

## 2. 시대적 사명과 ‘청년’의 결합

### -1901년부터 1914년까지 ‘청년’ 개념의 전개

『청의보』가 ‘청년’ 개념의 사용빈도 대부분을 점하는 상황은 량치차오가 1902년에 『청의보』를 『신민총보(新民叢報)』로 개칭하여 발행하면서도 계속된다. 량치차오의 『신민총보』를 중심으로 1902년에는 ‘청년’ 개념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서 량치차오는 청년을 교육<sup>21)</sup>·신학문<sup>22)</sup>·장래<sup>23)</sup> 등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1902년에 중국의 청년은 량치차오에 의해 교육받는 자들로서 새로운 내용을 배워야 할 존재로 그려지고 있었다. 일 년이 지난 1903년에 량치차오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청년들이 중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어떤 이는 “오늘날 나라 안의 각종 낡고 썩은 사회는 도덕적으로 암흑의 상태에 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도리어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청년들을 나무란다. 새로운 학문을 하는 청년들 중 비록 간혹 부덕한 자가 있어도 저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저들은 기대를 걸 수도 책망을 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건드릴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저들의 손에서 망했다. 따라서 오로지 새로운 학문을 하는 청년들이 죽을힘을 다해 나아가 중국을 살리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신중하지 않아서 저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면 중국은 구제불능이 된다.<sup>24)</sup>

21) “청년 교육에 전적으로 힘써 나라의 혼을 불러일으킨다.”[專務青年教育, 喚起國魂], 『新民說』, 『新民叢報』 第5·7號(1902)(DB).

22) “신학문을 배우는 청년에게 간곡히 바란다.”[遽責望於新學之青年], 『敬告留學生諸君』, 『飲冰室文集之十一』(1902)(DB).

23) “중국의 교육은 청년의 능력에 심각한 손실을 주고 있다. 이들을 장차 제대로 갖추어지게 해야 한다.”[中國之教育, 在摧殘青年之才力, 使之將來足備], 奮翮生(蔡鐸), 『軍國民篇』, 『新民叢報』 第1號(1902)(DB).

24) 梁啓超, 『新民說·論私德』(1903), 『新民叢報』 第四十·四十一號(DB).

<표 2>에 따르면, 1903년에는 1902년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1914년 이전 중 사용빈도가 가장 많았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신민총보』의 ‘청년’ 사용빈도는 전년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절강조』와 『강소』가 『신민총보』를 뛰어넘거나 혹은 대등한 빈도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절강조』와 『강소』는 재일중국인유학생 향우회가 발행한 잡지이고, 이 해에는 이들을 비롯한 재일중국인유학생 잡지 총4종이 창간되었다. 이것이 1903년에 ‘청년’ 개념의 사용빈도가 증가한 원인이었다.<sup>25)</sup>

유학생 스스로가 잡지를 발행하자 청년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우리 청년(我青年 혹은 吾青年)’이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했다. 이는 청년이 더 이상 계몽적 논조에서 기대의 대상이 아닌 담론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절강조』의 발간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청년 자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

<표 2> 1901~1914년 ‘청년’의 사용빈도와 주요 문헌

연도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사용빈도	22	90	205	72	21	30	28
다수 출현 문헌(빈도)	『清議報』(20)	『新民叢報』(42) 『飲冰室專(文集)(39) *梁啓超 사용(61)	『浙江潮』(72) 『新民叢報』(40) 『江蘇』(29)	『江蘇』(31) 『新民叢報』(14)	『新民叢報』(5) 『外交報』(5)	『外交報』(8) 『新民叢報』(7) 『民報』(4)	『民報』(10) 『外交報』(5) 『漢軼』(3)
연도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사용빈도	57	98	52	17	7	12	12
다수 출현 문헌(빈도)	『外交報』(31) 『民報』(8)	『外交報』(92)	『外交報』(51)	『婚姻改良論』(10) 『社會主義與社會政策』(4)	『庸言』(4) 『飲冰室文集』(3)	『庸言』(11)	『庸言』(11) 『飲冰室文集』(1)

“애국의 눈물이 모여서 절강의 조수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세상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강의 조수이다. …… 나는 우리 청년의 기세와 힘이 절강의

25) 1903년 재일중국인유학생잡지 창간과 관련된 사항은 楊海雲, 『從『浙江潮』看1903年的社會思潮』,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4), 1쪽 참조. 『浙江潮』는 浙江留日學生同鄉會가, 『江蘇』는 江蘇留日學生同鄉會에서 각각 발행했다. 다른 두 종의 유학생 잡지는 湖南留日學生同鄉會의 『游學譯編』과 湖北留日學生同鄉會의 『湖北學生界』이다. 楊海雲, 같은 책, 6쪽 참조. DB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들 잡지에서 ‘청년’이 언급된 횟수는 각각 16회씩이다. 이 잡지들도 모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903년 ‘청년’의 자기 목소리 내기에 동참했다. 네 잡지의 ‘청년’ 사용빈도를 합산하면 133회로서 총205회의 절반을 넘어선다.

조수와 같고 우리 청년의 기백이 절강의 조수와 같으며, 우리 청년의 명성도 절강의 조수와 같기를 바란다. …… 명칭을 통해 거울삼고 남의 거울이 되며, 동시에 스스로 다짐하고 또 축원한다.”<sup>26)</sup>

이 글에서는 청년을 고향의 웅장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강인한 애국정신을 청년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또한 『강소』에서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모두 스스로가 주인공이라 자임한다.”<sup>27)</sup> “그들은 우리 애국청년들이 날마다 혁명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sup>28)</sup>라고 말하며 청년이 국가를 책임지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한편 『호북학생계』의 “우리 청년의 영민한 두뇌와 활발한 정신을 따른다.”<sup>29)</sup> 『절강조』의 “명민하고 활발한 속성이 바로 청년이다.”<sup>30)</sup>라는 말에서는 청년이 우수하고 생기 있는 존재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신청년』 창간 이전 ‘청년’이 가장 활발히 호명되었던 1903년에 중국유학생들은 언론활동을 통해 국가의 주인공임을 자임했다. 동시에 청년의 영민함과 활발함이 강조되면서 왕성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이는 모두 청년 세대에 속하는 이들 자신의 목소리로 제시되고 있었다.

1904년에 ‘청년’ 개념의 사용빈도는 다시 하강한다. 이유는 전년에 ‘청년’을 호명했던 유학생잡지들 중 『강소』를 제외한 3종이 자취를 감추었고, 『신민총보』도 ‘청년’을 언급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1906년에 『민보(民報)』가 창간되면서 ‘청년’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달라졌다. 여기서는 청년에 대한 기대나 성격규정보다는 “최근의 청년은 자유를 오해해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sup>31)</sup>라는 식의 청년을 비판하는 논조가 제시된다. 이는 1902년에 “자유라는 말이 점차 청년들의 상용어가 되고”<sup>32)</sup> 몇 년 후에 청년이 자유를 그릇되게 향유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1905년부터는 『외교보(外交報)』에서 점차 ‘청년’이 언급되는 횟수가 증가했고 1909년에 다시 사용빈도가 고점을 보이지만 이 경우는 대부분 외국의 문헌을 번역하여 소개하거나 서양의 상황을 전하는 보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26) 『浙江潮發刊詞』, 『浙江潮』第一期(1903), 1-2쪽.

27) 『教育通論 緒言(續第四期)』, 『江蘇』第六期(1903)(DB).

28) 『內國時評』, 『江蘇』第六期(1903)(DB).

29) 『教育與群治之關係』, 『湖北學生界』第四期(1903)(DB).

30) (英國) 威男 著, 之江索子 譯, 『地底旅行』, 『浙江潮』第十期(1903)(DB).

31) 聖齋, 『陳星台先生絕命書[附跋]』, 『民報』第二號(1906)(DB).

32) 中國之新民, 『新民說』, 『新民叢報』第七號(1902)(DB).

들어, 이 시기 ‘청년’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보도기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1908년 청년투르크당의 혁명과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서 ‘청년’이라는 용어는 청년투르크당을 지칭하는 ‘청년당’에 포함된 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1905~1909년의 ‘청년’ 사용빈도의 증가는 청년 담론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외교보』가 1911년 1월을 끝으로 중단되자 ‘청년’의 언급횟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청년’을 특별한 의미로 많이 언급한 경우도 없었다.<sup>33)</sup> 이때 일부 문헌에서 혼인개혁을 주장하면서 ‘청년’이 다시 ‘젊은 시절’, ‘젊은 남녀’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사회정책을 논한 글에서 청년단체를 언급하면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특징적인 주장이 그리 보이지 않는다.

1912년에는 다시 량치차오가 ‘청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이때 량치차오는 주로 청년투르크당을 비롯한 외국소식의 전달과 단순히 젊은이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청년’을 사용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량치차오가 청년을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점이다. 그는 “나의 경애하는 청년들이 거의 하찮게 되었다.”, “학문을 하는 청년들이 사치와 방종을 하고 덕을 해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다.”,<sup>34)</sup> “파괴하려는 학설이 청년의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sup>35)</sup>라고 말하며 당시 청년의 현실적 모습에 반감을 표한다. 이로써 국가 개조를 담당할 집단으로 기대하며 ‘청년’을 묘사했던 19세기말 20세기 초와는 상반된 논조를 보인다.

위와 같이 20세기에 들어선 후 『신청년』 창간 이전까지 중국에서 사용된 ‘청년’ 개념의 의미와 그 사용추이를 살펴보았다. ‘청년’이 점차 전통적 의미에서 탈피해서 젊은 세대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한 이후 청년은 계몽적 매체에서 시대의 과제에 부응하는 존재로 불리게 되었다. 여기서 ‘청년’은 근대적 지향과 결합하고 있었다. 중국 청년이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학문이었고, 그들은 우수한 지력이나 활력을 갖춘 존재로서 새로움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춘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신학문을 배우던 학생들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청년이라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청년’상을 활발히 그려냈던 제일중국

33) 1911년과 1912년의 통계수치의 감소는 당시 전체 문헌 분량의 감소와 관계가 있다. DB에 수록된 문헌의 양을 보면 1897~1910년에는 단위가 100만자 단위였고, 1910년에도 2,743,779자이다. 그러다가 1911년에는 문헌양이 절반이상 감소하여 1,101,378자이고, 1912년에는 다시 여기서 절반이상 감소한 420,746자이다. 한편 1915년 이전 ‘청년’의 출현횟수가 최고 수치를 보인 1903년의 문헌양은 5,256,609자로 DB에 수록 문헌의 연도별 분량 전체에서 최고 분량이다. <表14.1>, 金觀濤·劉青峰, 같은 책, 576쪽 참조.

34) 이상 두 표현은 『莅北京大學校歡迎會演說辭』, 『飲冰室文集卷之二十九』(1912)(DB).

35) 『鄙人對於言論界之過去及將來』, 『飲冰室文集卷之二十九』(1912)(DB).

인유학생잡지가 폐간된 후에는 ‘청년’의 속성이나 시대적 사명에 대한 언급이 미약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오히려 ‘청년’이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면서 시대의 사명과 ‘청년’을 연결 짓는 담론이 활기를 잃었다.

### Ⅲ. 역사적 기원-『신청년』 창간 이전 천두슈와 ‘청년’

이 장에서는 『신청년』 창간 이전 천두슈의 행적을 탐색하여 1915년부터의 ‘청년’ 담론에 기원이 되는 요소를 찾아보겠다. 문헌에서 1915년 이전에 천두슈가 ‘청년’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천두슈는 『안휘속회보(安徽俗話報)』에서 ‘청년’이라는 용어를 몇 번 사용했지만 이때는 ‘젊은 남녀[青年男女]’라는 표현에서 ‘젊다’라는 의미로 청년을 사용했거나,<sup>36)</sup> ‘안후이 지역의 뜻을 품고 배우고자 하는’ 청년 혹은 ‘서양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청년을 묘사하는 맥락에서 사용했다.<sup>37)</sup>

천두슈가 ‘청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계기는 천두슈의 사상적 전향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천두슈는 1897년 강남향시(江南鄉試)에 응시하고 중국의 과거제도에 실망했으며, 이 무렵 『시무보(時務報)』를 읽고 변법유신파에 공감했다. 1898년에는 항저우(杭州)의 구시서원(求是書院)에 입학해서 수학·천문학·영어·프랑스어·조선학 등 신학문을 배우는 한편 반청운동에 투신했다.<sup>38)</sup> 천두슈는 이때부터 신학문 습득과 정치운동의 길에 들어섰다. 이 신학문의 습득과 정치운동의 본격화 과정에는 몇 차례의 일본행이 있었다.<sup>39)</sup> 이 행적에서 천두슈가 ‘청년’을 근대 중국의 현실과 결합시키는 몇몇 단서가 발견된다.

첫 번째 일본유학길에 올랐던 1901년에 23세였던 천두슈는 그 자신이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유학생 청년이었다. 이해 10월에 천두슈는 도쿄전문학교(와세다대학교의

36) 三愛, 「惡俗篇」, 『安徽俗話報』 第四期·第六期(1904)(DB).

37) 『本省의新聞」, 『安徽俗話報』 第二期(1904); 「西洋各國小學堂의情形」, 『安徽俗話報』 第十八期(1904)(DB).

38) 唐寶林·林茂生, 『陳獨秀年譜』(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9-13쪽 참조.

39) 천두슈는 1901년부터 1914년까지 총 다섯 차례 일본을 왕래했다. 천두슈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張家康, 『陳獨秀五次東渡日本』, 『廣東黨史』 2002年 第3期; 唐寶林, 『陳獨秀與日本』, 『百年潮』 2007年 第1期; 張旭東, 『青年陳獨秀五渡日本始末』, 『文史天地』 2007年 第10期 등을 참조.

현신)에 입학했고, 아울러 연말에 중국인 유학생조직 여지회(勵志會)에 가입했다.<sup>40)</sup> 여지회 가입 동기는 일본유학 전에 발생한 청일전쟁과 의화단운동에서 약한 자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국가와 개인이 공동운명체라 생각하게 된 데 있었다.<sup>41)</sup> 사실 천두슈는 일본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여지회와 인연이 있었다. 일본유학 전에 천두슈는 안칭(安慶)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며 쑤저우(蘇州)에서 출판되는 『여학역편(勵學譯編)』의 안칭 지역 판매를 맡고 있었다. 『여학역편』의 발행단체인 여학역사(勵學譯社)는 바로 일본에서 1900년 봄에 결성된 여지회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42)</sup> 여지회는 1900년 12월에 『역서회편(譯書匯編)』을 창간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 서구의 근대 정치이론을 번역해서 수록했다.<sup>43)</sup> 천두슈는 『역서회편』에 실린 저작들의 영향을 받아 캉여우웨이식 개량에서 혁명으로 전향했다.<sup>44)</sup>

천두슈의 일본유학생조직 활동과 근대적 정치사상 학습은 청년조직 결성으로 이어진다. 천두슈는 1902년 3월 상순에 귀국해서 안칭의 급진성향 청년들과 함께 청년여지학사(靑年勵志學社)를 조직했고 『애국신보(愛國新報)』를 발간하면서 새로운 지식의 전파와 애국사상의 선양, 혁명의 고취를 표방했다. 안칭에서의 혁명운동 때문에 정부의 수배를 받아 두 번째로 일본에 갔던 1902년에는 마치니의 청년이탈리아당을 표본으로 삼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청년회(靑年會)’<sup>45)</sup>를 조직했다.<sup>46)</sup>

여기서 살펴본 일본 유학 경력, 서구의 근대 정치이론 습득, 청년단체 활동 등은 유학생들이 ‘청년’으로 자신을 호명하고 이를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연결시키던 1903년 재일중국인유학생의 경우와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역사 속의 천두슈의 모습은 근대적 정치사상의 담지자이자 현실참여의 주체인 근대적 ‘청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47)</sup>

40) 唐寶林·林茂生, 같은 책, 18쪽 참조.

41) 천두슈는 글에서 외국의 상황을 고찰하기 전 국가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청일전쟁의 패배와 의화단운동 이후 열강국가의 개입에 대한 목격이었다고 회고한다. 三愛, 『說國家』, 『安徽俗話報』第5期(1904) in 任建樹等編, 『陳獨秀著作選』(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55쪽.

42) 쑤저우의 『여학역편』은 동경의 『역서회편』에 실린 글들을 실었으며 『여학역편』의 도쿄 판매처는 『역서회편』의 발행지였고 『여학역편』에는 『역서회편』 판매 광고도 실렸다. 唐寶林, 같은 글, 47쪽 참조.

43) 唐寶林, 같은 글, 46-47쪽 참조.

44) 唐寶林·林茂生, 같은 책, 18-19쪽 참조.

45) 靑年會의 본래 명칭은 少年中國會이었으나 청나라 조정의 경계와 감시를 의식해서 평범하게 청년회로 개칭했다고 한다. 참고로 또한 이 조직은 일본에서 결성된 최초의 혁명학생조직이었다. 한편 청년이탈리아당은 중국에서 少年意大利로 불렸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신일섭, 『陳獨秀의 思想과 活動 研究』,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1994), 10쪽 참조.

46) 唐寶林·林茂生, 같은 책, 21쪽 참조.

1900년대 초기 두 차례의 일본행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국가의 현실을 개조하려는 ‘청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행적에서는 담론의 사상적 연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장스자오(章士釗, 1881~1973)의 『갑인(甲寅)』 발행을 도우며 도쿄에 머물렀던 1914년에 발표한 『애국심과 자각심』이라는 글에서 발견된다. 이 글에서 천두슈는 국가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두 가지 심적 요소로 애국심과 자각심을 제시하고, 중국의 당시 현실에서는 맹목적 애국심보다는 자각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각심에 대한 천두슈의 강조는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그는 근대 유럽의 사례를 근거로 “국가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sup>48)</sup>라고 국가의 본질을 정의한다. 이를 근거로 애국심을 요구하려면 국가는 그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애국심과 자각심을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로 제시하고 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애국심은 감정[情]에 속한다. 자각심은 지혜[智]에 속한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모하는 단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각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목적과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을 모른 채 국가를 사랑한다면 몽매해지고 국가의 상태를 모른 채 국가를 사랑한다면 위태로워진다.<sup>49)</sup>

여기에서 천두슈는 국가의 목적과 현실에 대한 자각이 애국에 선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천두슈는 중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존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복리에 해를 끼쳤으므로 국가의 목적인 권리보장과 행복 추구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은 ‘결코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없기 때문에 애국심이 성립할 수 없다.’<sup>50)</sup>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천두슈는 중국을 “국가의 상태를 모른 채 사랑하는 부류”<sup>51)</sup>로 분류한다. 뒤이어 국가의 상황을 모른 채 무작정 애국하는 것은 나라를

47) 한편 ‘청년’이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부터 해외 선교사들이 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고 ‘청년’을 제호로 사용한 잡지를 발행하면서 널리 쓰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천두슈가 ‘청년’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한 데는 이들 기독교 계열 잡지와 혼동을 일으켜서 당국의 삼엄한 언론검열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추측한다. 해당 내용은 呂明濤, 『『青年』雜誌與『青年雜誌』, 『書屋』 2008年第8期, 64쪽 참조.

48) 獨秀, 『愛國心與自覺心』, 『甲寅』 第一卷 第四號(1914), 任建樹等編, 『陳獨秀著作選』(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114쪽.

49) 獨秀, 같은 글, 114쪽 참조.

50) 獨秀, 같은 글, 114쪽 참조.

51) 獨秀, 같은 글, 115쪽.

그르치는 일이라 주장한다.<sup>52)</sup> 여기서 궁극적으로 그가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적 애국보다는 현실을 파악하는 지혜였다. 따라서 그가 글에서 강조한 것은 대의제나 입헌군주 등 정치체제의 제시보다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의 지혜, 즉 ‘자각심의 확립’<sup>53)</sup>이었다.

『애국심과 자각심』의 견해는 그 이전까지 근대 중국의 정치운동에 대한 반성에서 연원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정치체제 수립을 혁명의 중심 논제로 설정했던 중국의 기존 정치운동, 특히 애국주의 운동에 전체에 대한 반성이었다. 또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청일전쟁의 패배와 의화단운동 이후 열강의 간섭 등 청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시련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가지게 된 장래 모색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국가에 대한 관심의 포기<sup>54)</sup>라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근본적 사유의 결실이다. 아울러 ‘자각심의 확립’은 국가적 현실에 대한 대응전략의 중심이 정치체제에서 국가구성원의 현실인식과 지혜의 강화로 이동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신청년』의 사고에서 표방한 청년이 세계의 정세와 학술·사조를 이해하고 높은 수준의 이론적 내용을 쉽게 습득해야 한다는 지향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국가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사유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초기 『신청년』에서 제시되는 ‘개인분위 가치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1900년대 초반부터 『신청년』 창간 시기까지 천두슈의 행적에서 ‘청년’이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03·4년 무렵 천두슈는 같은 시기 유학생조직과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들어온 지식을 배우면서 현실개조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청년’의 모습을 실천으로 구현했다. 그 후 수년 간 천두슈는 혁명운동의 난관과 좌절을 거친 후 국가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각의 기제는 잡지의 독자층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현실개조의 주체였던 ‘청년’을 설정한 후 이들에게 제반 근대적 가치를 끊임없이 설파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52) 獨秀, 같은 글, 115쪽 참조.

53) 獨秀, 같은 글, 117-118쪽 참조.

54) 애국심과 자각심이 발표되었을 때 중국에 있던 『갑인』 독자들은 애국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항의했다. 唐寶林, 같은 글, 49쪽 참조.

#### IV. 초기 『신청년』에서 제시한 ‘청년’의 상

##### 1. 자기 자각으로 거듭나는 ‘청년’

이 절에서는 젊은 세대 집단이라는 의미로 정착하여 시대적 사명과 결합했던 1915년 이전 ‘청년’의 모습과 1914년 천두슈의 ‘자각심의 확립’에 대한 강조가 『신청년』의 ‘청년’ 담론과 논리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구체적으로, 1900년대 초반에 량치차오가 발행한 잡지와 재일유학생잡지가 제시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 ‘청년’과 『절강조』를 비롯한 재일중국인유학생잡지가 제시한 활발한 속성을 지닌 ‘청년’, 그리고 ‘자각심의 확립’에 대한 강조가 『신청년』의 ‘청년’ 담론에서 체계적으로 드러남을 볼 것이다.

<표 3> 『신청년』 창간 초기(1915~1916) ‘청년’의 사용빈도와 주요 문헌

연도	1915	1916	합계
사용빈도	325	513	838
다수 출현 문헌(빈도)	『新青年』(219) 『大中華』(71)	『新青年』(452) 『大中華』(61)	

<그림 1>에서는 1903년부터 1914년까지 저조기를 보였던 ‘청년’의 사용빈도가 1915년에 다시 급증했고, 1916년에는 최고점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는 그 구체적인 횟수가 명기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이 시기 『신청년』의 ‘청년’ 사용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시의 총 빈도에서 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을 독자로 선정하고 국가와 세계정세에 대한 청년의 자각을 도모한 『신청년』이 잡지를 구성한 기사에서도 ‘청년’에 대한 관심정도를 높게 표출했음을 보여준다.

초기 『신청년』에서 묘사하는 현실 속 청년의 모습은 1915년 이전 『민보』나 『용언』에서 언급하는 모습처럼 부정적이었다. 천두슈는 『신청년』의 첫 기사인 『삼가 청년에게 고함』의 첫머리에 “나이가 어리지만 성숙하다.[少年老成]”라는 중국의 격언과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한다.(Keep young while growing old)”라는 영미권의 격언을 비교한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청년들을 ‘나이는 젊으나 몸은 늙은 자가 반이고 몸과 연령은 젊지만 정신이 늙은 자가 9할이며 겉으로는 젊어 보이나 머릿속은 모두가 진부하고 썩었으며 통속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sup>55)</sup> 다른 글에서

는 청년들의 신체적으로는 타국에 비해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는 온통 관리되기와 돈벌이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56)</sup> 또한 중국의 청년은 ‘수천 년 동안 부모의 교육 아래서 자라왔으며, 가정이 청년의 앞길을 막아왔다.’<sup>57)</sup> 청년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일정한 뜻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은 공업, 내일은 사범학교, 그 다음날은 법정학교, 그 다음날에는 육군학교에 입학한다.”<sup>58)</sup>라고 지적한다. 여기서는 청년들이 통속화하는 원인을 청년이 처한 환경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신청년』이 부정적인 청년의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은 량치차오와 다르다. 량치차오는 청년을 닦하는 데 그쳤지만 『신청년』에서는 청년이 본질적으로 긍정성을 속성을 지녔음을 환기시키면서 이것을 청년들이 명심하라고 호소한다. 천두슈는 청년을 봄과 아침 해·새싹에 비유하고, 청년기가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기라고 말한다. 또한 청년은 신진대사의 원리에서 신선하고 활발한 세포와 같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를 거는 청년은 자각이 있고 분투하는 청년이라고 밝힌다. 여기서는 자각을 ‘자신들의 신선하고 활발한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를 귀중히 여기는 것’, 분투를 ‘지혜로운 능력을 발휘하여 낡고 썩은 것을 없애는 것’이라 정의한다. 또한 신진대사의 법칙을 사회의 법칙에도 적용하여 결국 청년이 그 법칙을 수행할 주체라고도 주장하게 된다.<sup>59)</sup> 여기서 천두슈는 청년이 청년다워지고 이에 따라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제로서 자각과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1914년에 제시한 ‘자각’이라는 기제가 여기서 ‘청년’을 호명할 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각이 삽입된 『신청년』의 ‘청년’ 담론에서 일차적 자각의 대상은 자기에 대한 자각이었다. 천두슈는 자기자각을 통해 당시 중국 ‘청년’의 부정적 현상이 타파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다른 글에서는 청년들에게 자각을 호소하는 이유로 ‘전제시대의 독에 비교적 적

55) 陳獨秀, 『敬告青年』, 『青年雜誌』 第一卷 第一號(1915), 1쪽 참조. 이하 『신청년』의 쪽수는 영인본의 전체 쪽수가 아닌 기사별로 쪽수를 매긴 『新青年』잡지의 쪽수 산정 방식을 반영한다.

56) 陳獨秀, 『新青年』, 『新青年』 第二卷 第一號(1916), 1-2쪽 참조. 관리되기와 돈벌이(做官發財)가 당시 청년의 중심적 지향이었음은 高語罕, 『青年與國家之前途』, 『青年雜誌』 第一卷 第五號(1916), 2쪽에서도 지적한다.

57) 高語罕, 같은 글, 1쪽.

58) 高語罕, 같은 글, 12쪽. 여기서 거론되는 전공들은 정말 민초 중국인의 일본유학에서 선호되던 전공들이다. 이 전공들의 교육과정 다수는 ‘속성(速成)’으로 운영되었고 그 까닭은 당시의 나라 만들기 수요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조류는 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근대 경제학 등 사회과학 학습으로 일대 전환하게 된다. 嚴安生 지음, 한영혜 옮김,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일조각, 2005), 85-105쪽 참조.

59) 陳獨秀, 『敬告青年』, 『青年雜誌』 第一卷 第一號(1915), 1쪽 참조.

게 물든 청년에게 자각의 가능성이 있다.<sup>60)</sup>라는 인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전제시대의 독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기존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청년의 자각 가능성을 낙관하는 견해에는 성장의 단계에 있고 교육을 받으며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청년의 속성을 자각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청년의 정신상태가 통속적이라 말하는 글에서도 청년은 ‘봄의 싹이 처음 돌아나 아직 울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고상하고 순결한<sup>61)</sup> 청년이 가정의 속박과 학교교육 속에서 통속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권자의 교육 파괴로 인해 청년들이 제멋대로 이고 진취적이고 향상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 죄가 교육에 있다.”<sup>62)</sup>라고 비판한다. 이들 사례에서는 당시의 부정적 상황이 ‘청년’ 자체보다는 외부의 상황에서 비롯했음을 강조하고 배우는 단계에 있는 청년의 미성숙한 속성을 본래 구사회의 습속에서 탈피하는 가능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신청년』이 자각의 기제를 제시할 때 ‘청년’은 그 자체의 활발함이라는 속성 때문에 신진대사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는 청년의 속성과 사회의 원리를 연관 짓고 있는데 『신청년』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 『신청년』의 여러 기사에서는 청년을 호명할 때 시대의 사명을 짊어지는 의미의 수식어를 붙였다. 그 사례로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먼 청년[任重道遠之青年],<sup>63)</sup> “책임이 중대한 우리 청년”,<sup>64)</sup>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청년은 백성의 중견(中堅)이다. 국가를 강하게 하고자 하면 우리 백성을 강하게 하면 되고 백성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 청년을 강하게 하면 된다.”<sup>65)</sup>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 기꺼이 책임을 지는 청년”, “국가 정세의 안위와 도덕의 존망, 일생의 영욕이 우리 청년들 어깨 위의 책임이다.”<sup>66)</sup> 등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이 표현들은 청년이 가져야 할 자각이 자신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자각임과 동시에 자신의 시대적 책무에 대한 자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신청년』은 청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책임 있는

60) 高一涵, 『共和國與青年之自覺』1, 『青年雜誌』第一卷 第一號(1915), 1쪽.

61) 高語罕, 『青年與國家之前途』, 『青年雜誌』第一卷 第五號(1916), 2쪽.

62) 陳獨秀, 『今日之教育方針』, 『青年雜誌』第一卷 第二號(1915), 1쪽.

63) 그 예로 高一涵, 같은 글, 3쪽; 高一涵, 『一九一六年』, 『青年雜誌』第一卷 第五號(1916), 1쪽.

64) 易白沙, 『戰雲中之青年』, 『青年雜誌』第一卷 第六號(1916), 1쪽.

65) 高語罕, 같은 글, 1쪽.

66) 易白沙, 같은 글, 4쪽.

존재가 되라고 요청한 것이다.

청년의 활기는 1903년과 1904년 재일중국인유학생잡지에서도 강조하던 속성이 다. 또한 천두슈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젊은 시절의 진취적 청년상은 『신청년』 창간 무렵에 지적한 무기력한 청년상과 대조되며 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연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기운이 쇠퇴한 나라를 되살릴 청년상 수립을 위해 천두슈에게 추가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1914년에 강조한 바 있는 ‘자각’의 기제였다. 아울러 청년의 속성으로는 미성숙 대신 활발함과 새로운 가능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함과 가능성은 ‘청년’에게 근대 중국의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다. 청년의 진취적이고 활발한 속성에 대한 강조, 시대적 사명과 청년의 결합 등은 1903년 무렵 유학생들이 제기한 적극적인 ‘청년’ 담론의 맥을 잇고 있다.

## 2. 국제사회의 현실과 개인본위 가치관의 환기

천두슈가 『애국심과 자각심』에서 강조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자각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의 상태와 목적에 대한 자각이라는 주장은 『신청년』의 국제질서 분석과 개인본위 가치관의 환기로 이어진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행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천두슈의 견해는 그를 비롯한 『신청년』 필자들이 국가의 정치형태와 개인의 관계를 논한 여러 글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자각은 적자생존의 원리가 성행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환기와 이에 대한 대응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가오위한(高語罕, 1888~1948)은 20세기 국제사회를 “생존경쟁과 만물분투의 20세기 세상”으로, 중국을 “국가와 민족이 쇠약하여 번번이 치욕을 당하고 위태롭기 그지없는”<sup>67)</sup> 상태로 묘사한다. 여기서는 국제사회에서 작동되는 경쟁의 원리를 인식하고 여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국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천두슈 역시 다른 글에서 “우승열패의 이치는 피할 수 없는 것”<sup>68)</sup>이라고 말하며 사회진화론이 국제사회의 법칙임을 지적한다. 또한 청년에게 세계적 시야의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요청하면서 ‘낙관론적으로 보면 청일전쟁과 의화단사건이 없었으면 중국은 여전히

67) 高語罕, 『青年之敵』, 『青年雜誌』第一卷 第六號(1916), 1쪽

68) 陳獨秀, 『抵抗力』, 『青年雜誌』第一卷 第三號(1915), 1쪽.

팔고와 변발에 머물렀을 것<sup>69)</sup>이라고 하며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 경쟁에서 생존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경쟁사회에서 열세에 처한 중국의 현실타개를 위해 『신청년』에서 찾은 해법은 강한 국가 만들거나 국가중심주의가 아니었다. 천두슈는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진화의 원리만을 일방적으로 추수하지 않고,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소개하면서 이 둘이 모두 불가결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진화론의 근거를 제시한 다윈도 이타심을 긍정했음을 거론하며 경쟁 일변도의 가치관을 경계한다.<sup>70)</sup>

더 나아가 『신청년』에서는 국가의 본질에 대한 서술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모두 국가보다 개인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천두슈는 청년에게 충효절의와 같은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서 자기 본위의 도덕을 수립하라고 충론을 제시했다.<sup>71)</sup> 그리고 가오이한은 공화가 낡은 도덕인 전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덕이라고 하면서 낡은 도덕 공화를 진취적이고 새로운 도덕이며<sup>72)</sup> 그 특징은 선거제도·복지·평등과 자유에 있다고 했다.<sup>73)</sup> 이렇게 새로운 사회상과 노예도덕으로부터의 탈피가 동시에 제시되는 맥락에서 보다 궁극적이 가치로 강조되는 것은 개인이었다. 국가의 속성을 밝힌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국가주의가 흥성하면 점차 적당한 선을 지나치게 되어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 구미 정치학자들은 ‘국가란 백성이 모인 단체이다. 안으로 모으고 밖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체 인민의 복지를 받드니, 집권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해석한다.<sup>74)</sup>

국가는 개인[小己]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인류가 창조한 것의 한 종류이며 그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그 천성을 스스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인도의 완전함을 추구한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지 국가가 먼저 있고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sup>75)</sup>

이들 사례에서는 국가의 목적이 인민의 복지임과 국가와 개인 중 개인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고 사이비 국가주의

69) 陳獨秀, 『敬告青年』, 4쪽 참조.

70) 『通信』, 『青年雜誌』第一卷 第二號(1915), 1쪽.

71) 陳獨秀, 『敬告青年』, 2쪽 참조.

72) 高一涵, 『共和國與青年之自覺1』, 4쪽.

73) 高一涵, 같은 글, 1쪽.

74) 陳獨秀, 『今日之教育方針』, 4쪽.

75) 高一涵, 『共和國與青年之自覺2』, 『青年雜誌』第一卷 第二號(1915), 2쪽.

로 백성을 쓰고 버리며 백성은 다시 가족주의 아래로 숨어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를 근거로 가오이한은 “정당히 노력해서 낡은 습관과 싸우고 독립자존의 정신으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반드시 서로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자유를 사랑하여 정신과 지체를 계발하고 각자의 특기에 따라 그것을 최대한도로 발양”하면 강성한 국가가 이루어진다고 개인우선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밖에 ‘국가란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수단’,<sup>76)</sup> ‘개인의 인격과 국가의 자격은 서로 평등하며, 애국이란 미명으로 개인을 국가에 구속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은 고대 국가에서나 있는 일’<sup>77)</sup>이라는 지적은 국가와 개인 중 개인이 우선됨을 부연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년』에서는 중국이 처한 국제적 현실을 환기시키고 이 상황에서 국가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의 가치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당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을 일면적인 강한국가 만들기에서 찾는 사회진화론이나 국가중심주의와는 다른 주장이다.<sup>78)</sup> 이처럼 초기 『신청년』에서는 국가에 대한 근원적이고 반성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자각을 강조한 『애국심과 자각심』의 견해를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청년이 이 가치관을 근거로 근대 중국의 주역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초기 『신청년』에서 제시하는 ‘청년’상과 중국 청년의 가치지향을 개념적·역사적 기원으로부터 고찰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도 ‘청년’이 전 근대의 ‘젊음’이라는 의미 대신 젊은 세대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는 과정과 근대 중국의 ‘청년’ 개념의 사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역사적 기원 탐색을 통해서도 천두슈의 1915년 이전 행적에서 『신청년』의 ‘청년’ 담론의 실천적·사상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용 결과 도출

76) 高一涵, 앞의 글(1915), 1쪽.

77) 高一涵, 앞의 글(1915), 7쪽.

78)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청년』의 기획을 ‘國族現代性’ 혹은 ‘국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파악한다. 羅永生, 『現代性與中國青年論述의流變』, 『중국현대문학』 49호(2009); 김민정, 『새로운 문명 주체의 확립』, 『중국 5.4운동 9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2009). 『신청년』에서 제기하는 청년의 책임 강조와 국가와의 관계형성에는 개인우선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한 개념 자료들은 ‘청년’ 담론 전개 추이 파악의 실마리가 되었으며, 역사적 기원 탐색은 이를 보완하여 『신청년』이라는 특정한 매체공간에서 진행된 ‘청년’ 담론을 보다 깊이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젊은 세대 집단이라는 전통적 의미를 벗어난 ‘청년’ 개념이 근대에 이르러 정착되는 동시에 근대 중국의 새로운 가치들과 결합하면서 근대와 긴밀히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근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던 중국의 청년들은 근대 중국의 과제에 일정하게 부응했다. 1900년대 초반 무렵 『청의보』와 『신민총보』의 계몽적 논설과 스스로를 ‘청년’으로 명명하며 시대적 현실에 대처하는 유학생들의 활동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는 ‘국가에 대한 사명을 짊어진 청년’, ‘새로움과 활력을 간직한 청년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신청년』은 1900년대 초반의 ‘청년’상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주 독자인 청년에게 무력하고 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 활발하고 신선한 존재로서 자신을 새로이 자각하고 새로운 사회의 주역인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청년』 창간·발행인 천두슈는 잡지 창간 한 해 전에 새로운 국가형성에 투신한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국가 중심의 사유를 탈피하자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는 『신청년』의 ‘청년’ 담론에 반영되어 노예도덕을 탈피한 청년상과 국가가 아닌 개인 본위의 사회상의 제시로 심화되었다.

초기 『신청년』의 ‘청년’ 담론은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새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언급된 ‘청년’에서 개념적·역사적으로 연원했고, 특히 개인본위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동인지나 중국공산당 기관지로 전환하기 전에 『신청년』에서 전개된 ‘청년’ 담론의 특징이다. 1916년 이후 잡지의 성격 변화에 따른 ‘청년’ 담론 진행과 그 시대적·사상사적 의미에 대한 규명은 이 연구가 남긴 차후 과제이다.

• 참고문헌

- 『中國近現代思想史專業數據庫』(1830~1930).
- 『新青年』(東京: 汲古書院, 1970).
- 『漢語大詞典』.
- 金觀濤·劉青峰, 『觀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8).
- 唐寶林·林茂生, 『陳獨秀年譜』(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 任建樹 等 編, 『陳獨秀著作選』(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 陳映芳, 『“青年”與中國的社會變遷』(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 唐寶林, 『陳獨秀與日本』, 『百年潮』2007年 第1期.
- 董秋英·郭漢民, 『1949年以來的『新青年』研究評述』, 『近代史研究』, 2001年 第6期.
- 鄧金明, 『從『新青年』到“新青年”』, 首都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8).
- 李憲瑜, 『『新青年』雜誌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2000).
- 史濤, 『『新青年』出場的歷史資源探析』,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2008).
- 楊海雲, 『從『浙江潮』看1903年的社會思潮』,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4).
- 呂明濤, 『『青年』雜誌與『青年雜誌』』, 『書屋』2008年 第8期.
- 張家康, 『陳獨秀五次東渡日本』, 『廣東黨史』2002年 第3期.
- 莊森, 『陳獨秀和『青年雜誌』』, 『文藝理論研究』2004年 第6期.
- 張旭東, 『青年陳獨秀五渡日本始末』, 『文史天地』2007年 第10期.
- 嚴安生 지음, 한영혜 옮김,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일조각, 2005).
- 羅永生, 『現代性與中國青年論述的流變』, 『중국현대문학』49호(2009).
- 劉青峰, 『관념사(觀念史)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 『개념과 소통』 No. 4(2009).
- 신일섭, 『陳獨秀의 思想과 活動 研究』,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1994).

## The Origin and Trait of the Discourse of 'Youth' in Early *La Jeunesse*

Song, In-Jae

In Modern China youth was connected closely with modernity in *La Jeunesse*. In pre-modern China qingnian(青年) only means 'young' or 'young age'. In the modern age, qingnian began to have the meaning of young generation. Especially, it means new group of student who studies new and western knowledge. Because of the national trial of China, Chinese young students concerned about their nation and participated political movements. From that time, Chinese young man did not only mean young man or new-type student but the new subject of constructing modern nation China. At first most of them only emphasized patriotism. It is about in early 1900s. The founder of *La Jeunesse*, Chen Duxiu(陳獨秀) was one of them at that time. But after some years there was a turning point of his thoughts. From 1914 Chen no more agree to blind patriotism and emphasized that consciousness of the purpose and condition of nation. From that time his thoughts began to escape from nation-centrism and turned toward individualism.

From the first edition of *La Jeunesse*, Chen and writers of that journal called youth as a new subject of constructing new China. And they emphasized that Chinese youth must awake their essential value and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new society. And many articles in *La Jeunesse* argued that individual is most essential in human society and more important than nation. Like this, *La Jeunesse* connected youth and modernity in Modern China. The main value of its discourse of 'Youth' was Consciousness, Social role and Individualism of youth in modern China.

Key Words: youth, modern, individual, Chen Duxiu, *La Jeunesse*

필자 E-mail: tanksong@hanmail.net (송인재)

투고일: 2010년 1월 23일/ 심사완료일: 2010년 2월 22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4일